

남북정상회담 D-1

노대통령 주말 잇고 준비 박차

평양 일정 시뮬레이션으로 일일이 점검

현장과 시각

언제까지 혁신구호만...



아침 저녁, 가을 분위기가 완연하다. 계절의 변화와 함께 전남도청 직원들은 긴장된 표정을 역력하다. 또 한 번의 '혁신 바람'이 불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박치경

정정부 차장

전남도는 이달 말까지 분청 직원을 대상으로 전환직도 조사를 실시한다. 지난 1997년 말부터 이듬해 초까지 진행된 큰 충격을 몰고 왔던 전환직도 조사 재개 소시에 직원들은 몸을 잔뜩 움츠리고 있다.

10년 전 첫 전환직도 조사는 당시 허경만 지사가 한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별이 10년 이상 울려도 받지않자 특별지시를 해 이뤄졌다. 당시에는 매달 각 실·과의 친절도 1위 직원과 하위 직원 1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최종적으로 불친절 직원 6명이 퇴출되고 이들은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법원도 전남도의 결정을 인정했다.

10년이 지난 후 실시되는 전환직도 조사에 대해 담당부서 책임자는 "직원들 사이에서 전화 응대로 상징되는 공직 근무자세가 느슨해진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와 다시 조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우수 실·과는 표창하지만 불친절 직원에 대한 징계는 고려하지 않아 10년 전처럼 큰 파장을 불러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사 대상인 직원들은 대부분 불친절하다고 지적된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데 공감한다.

다시 전환직도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을 전해 들은 직원들의 반응은 일단 부정적이다. "할 일도 많은데 전화 벨이 울릴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느냐. 아직도 직원들이 신인받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라는 불만이 앞선다. 반면 담뽀를 펴는 이는 손가락에 꼽기 어렵다.

또 하나의 혁신 프로그램은 1일부터 다음달 초까지 이어지는 도 분청 6급 이하 공무원 420명을 대상으로 하는 혁신 특별교육이다. 이 교육은 공직자의 정신 재무장, 자기혁신과 변화관리 등 혁신마인드 함양과 변화관리 과정으로 편성돼 운영된다.

특별혁신교육에 대해서도 반응은 별로다. "지금 변화와 혁신의 시대이며 과거의 낡은 사고방식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혁신교육의 필요성은 귀에 못이 박힐 지경이라는 것이다. 직원들은 자체 교육에다 정부 기관에서 수시로 진행되는 교육에 참석하느라 업무처리에 지장을 받을 정도라고 하소연한다.

행정기관의 잦은 혁신프로그램 진행 소식을 전해 들은 주민들의 표정도 씩 박지는 않다. 주민들은 "친절과 혁신은 21세기 공무원의 기본이다.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언제까지 혁신구호만 외치고 있을 것이냐"는 걱정을 앞세우고 있다.

/unipark@kwangju.co.kr

교류협력 장애원인 철저 분석 의제 자료 보강...연설문도 만전

'2007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은 주말도 잇은 채 정상회담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노 대통령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회담은 물론 각종 참관지 방문 등 평양에서의 2박3일간 일정 전체를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사전 점검하는 한편, 이번 회담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청와대 참모들과 숙의도 거듭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기존 남북 간 합의사항이 잘 이행되지 않거나 교류협력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극복 대책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분석 자료를 보완하도록 수시로 지시하고 있다고 천 대변인은 설명했다.

그 일환으로 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참모들로부터 평양 체류 2박3일간의 전 일정을 비디오 및 사진 클립을 이용해 30여분간 시뮬레이션으로 입체적인 보고를 받았다.

이 동영상과 사진은 남북 선발대가 직접 찍어온 것과 기존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됐으며, 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회담하게 될 장소부터 시작해 각종 참관지에 대한 화면과 사진, 상황에 따른 의제와 북측 참석인물에 대한 소개도 자세히 곁들여졌다.

노 대통령은 또 김 위원장과 논의할 각종 의제와 관련해 청와대 비서실과 각 부처 보고 자료들을 보강할 것을 수시로 지시하고 있고, 이렇게 정제된 자료들은 전용 노트북 컴퓨터에 일목요연하게 담겨 평양으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천 대변인은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기간에 모두 7~8번의 연설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연설문 작성에도 만반의 준비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 군사분계선(MDL) 통과 시에도 짝맞춘 코멘트를 할 것으로 전해졌고, 평양 도착 성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청와대 비서실도 지난 주말 안보실과 홍보수석실, 국정상황실, 경호실 소속 전원이 출근해 막바지 준비작업에 만전을 기했다.

/연합뉴스

노대통령 방북 2박3일 일정

2일 오전

- 청와대 출발(오전 8시 이전)
- 군사분계선(MDL) 통과(오전 9시 전후)
- MDL 북측지역서 개성시, 황해북도 인민위원장 영접 예상
- 평양~개성 고속도로를 이용 평양행(수곡 휴게소 휴식)
- 평양도착 및 공식환영식 참석(약 12시 이전)

2일 오후

- 속소인 백화원 영빈관 도착, 정상회담(김정일 위원장 영접시)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면담(만수대 의사당)
- 3대혁명사업관중 중공업관 참관
- 북측 공식환영만찬(목란관)

3일 오전

- 1차 남북정상회담(오전중 예상)

3일 오후

- 노대통령 남측 수행원 초청 오찬(목류관)
- 2차 남북정상회담(오후중 예상)
- 아리랑공연 관람(5.1경기장)
- 노대통령 초청 담례만찬(인민문화회관)

4일 오전

- 남포 평화자동차공장 참관
- 남포 서해감문 참관

4일 오후

- 환송오찬(백화원 영빈관)
- 공식환송식
- 평양~개성고속도로를 이용해 개성행
- 개성공단 시찰
- 서울 도착-환영식



정상회담 기간 평양 하리고 비

2일 노대통령 군사분계선 넘을 때 비는 안 올 듯

2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는 날씨 속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2~4일 평양 지역은 한반도 북쪽을 지나가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고 비가 오는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지난달 30일 예보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군사분계선을 넘어 육로로 방북하는 2일 경기도 일대는 구름이 많겠지만 비가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날 평양 지역 역시 하늘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은 15도, 낮 최고기온은 23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아리랑 공연을 관람하고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3일 날씨가 차차 흐려져 비가 올 가능성이 있다.

공식 행사를 마무리하고 개성공단을 방문한 뒤 육로로 귀환하는 4일 평양과 황해도 등지에는 흐리고 비가 내린 후 차차 개졌지만 경기도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으로 기상청은 예상했다.

/연합뉴스



수화물 검색

'2007 남북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지난달 30일 경호실 관계자가 청와대 연무관에서 방북수행원 및 기지단의 수화물을 탐지기를 동원해 검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일근 개성인민위원장 나올 듯

■ 군사분계선 영접 누가

노무현 대통령이 2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육로 방북하는 길에 군사분계선(MDL)을 걸어서 넘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MDL 현장에서 어떤 북측 인사가 대통령 일행을 맞을 지도 관심이 쏠린다.

노 대통령은 방북 첫날 청와대를 출발, 경의선 도로 남북출입사무소(CIQ)를 지나 2.7km 떨어진 군사분계선까지 차량으로 이동, 도로로 분계선을 넘은 후 북측 인

사를 처음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리에는 북한의 지방 행정기관장이나 대통령 일행을 영접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 북측 지역에 속해 있는 개성시의 김일근 인민위원장이나 황해북도 리상관 인민위원장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노 대통령에 대한 극진한 예우 차원에서 '중앙'에서 거물급 인사가 직접 군사분계선 현장까지 내려와 영접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연합뉴스

■ 단독 회담 배석 누가 北 배석따라 탄력대응...김만복·백종천 유력

단독 정상회담은 확대 회담과 달리 극소수의 핵심 멤버만이 참석하는 데다 참석자 면면을 보면 회담의 의제를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독회담 배석자는 공식수행원 가운데 선정될 것으로 보이며, 대통령 특사로 두 차례 방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주역인 김만복 국정원장이 1순위로 거론

된다.

특히 북측에서는 대남문제 실무 책임자이자 김 위원장의 최측근 실세로 이번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나올 것으로 보여 카운터파트로서 배석이 불가피하다는 측면도 있다.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도 배석이 유력하다. 참여정부의 통일,외교·안보정책 부

야에서 노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측근 참모이기 때문이다. 대북관계의 공식 주무인 이재정 통일장관도 생각할 수 있다.

노 대통령이 회담의 방점을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에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권오규 경제부총리나 성경통 청와대 정책실장 등 경제관련료의 배석도 접할 수 있다.

/연합뉴스

100% 유기농이재민농물

장수촌쌈밥

자연 그대로... 우리물에 들은 유기농산물입니다

100% Made in Korea

장수촌쌈밥 배식처 문의: 02-522-5933

이태리가구 전문점

홍스페이스

100% Made in Italy: 엔락, 클래식, 키우치소파

www.hongspace.com

광주광역시 동구 삼평로4길 1(구도입점) 홍스페이스방영 062) 226-7587